

湖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期の 墓制와 地域性

李 東 熙 *

목 차

- I. 머리말
- II. 諸墓制의 檢討
- III. 段階의 設定
- IV. 墓制의 地域性
- V. 맺음말

< 요약 >

기존에 호남지방에서 점토대토기문화기의 墓制로 알려진 것은 적석목관묘(적석석관묘), 토광(목관)묘, 옹관묘, 주구묘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묘제가 호남지방에 있어서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점토대토기문화기에도 청동기시대의 묘제가 잔존하고 있어, 지역마다 그 양상이 상이하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호남지방에 있어 점토대토기 유입기의 묘제의 양상과 그 변천, 그리고 지역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호남지방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묘제를 유물상과 관련지어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기(I단계)에, 세형동검·조문경·흑도·원형점토대토기 등의 새로운 유물이 확인되고 있지만, 묘제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묘제에 신묘제인 적석목관묘의 일부 속성이 가미된 적석석관묘·석개토광묘, 지석묘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적석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전북지역에서, 지석묘는 전남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의 초기에 호서지방의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같은 신묘제의 유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물에서도 뒷받침되다싶이 요녕지방 등지에서의 유이민의 1차 도래지가 호서지방이 중심이었고, 호남지방은 그러한 문화의 2차적인 파급속에서 묘제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호남지방에서 화순 대곡리와 같은 적석목관묘가 출현하는 것은 호서지방보다 늦은 기원전 3세기대에 이르러서이다(II단계). 이후에 토광묘·주구묘·옹관묘 등이 나타난다. 다뉴조문경이 출토되는 I단계를 요녕지방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점토대토기문화가 파급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다뉴세문경이 확인되는 II단계 이후는 점토대토기문화의 토착화가 진전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도 전남지역은 새로운 문화의 영향이 더 늦었다고 판단된다. 전남지역에서 영산강유역의 전남서부지역에는 지석묘가 일부 지속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른 단계의 토광묘나 적석목관묘가 조사되고 있어 전남동부지역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는 전남동부지역에 토광목관묘 이전의 적석목관묘 단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구묘나 옹관묘도 조사된 바가 없어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남동부지역이 산악지대이면서 문화 전파의 종착지였고, 청동기시대 이래의 지석묘가 장기적으로 사용되어 신묘제와 문화를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보수성에 기인할 것이다.

* 順天大學校 博物館 學藝研究士

I. 머리말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粘土帶土器文化의 존속기간은 기원전 4세기대부터 기원전후한 시점 혹은 기원후 1세기대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細形銅劍 및 黑陶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전기의 원형점토대토기문화에 뒤이어 후기에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와 더불어 철기문화가 도래하는 역동적인 단계이다.

호남지방에서 점토대토기문화기의 墓制로 알려진 것은 적석목관묘(적석석관묘), 토광(목관)묘, 옹관묘, 주구묘 등이다. 기존에 호남지방에서 점토대토기가 존속되었던 시기의 묘제 연구는 소략하였다. 이를테면 積石木棺墓나 石蓋土壙墓를 토광묘에 포함하여 4·5세기대까지 통시적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하다(한수영 1996 ; 최완규 2000 ; 한옥민 2000). 이러한 측면은 조사례가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점토대토기문화기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바도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후기와 철기시대 전기에 걸쳐 있는 점토대토기문화기는 청동기, 토기조합, 무덤 및 주거양상 등의 제 측면에 있어서 독자적인 특색을 보인다(노혁진 2001). 역사적으로는 三韓의 성립과 발전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기원후 1~2세기대의 호남지방의 묘제에 있어 일정한 공백기를 감안한다면(한수영 1996 ; 한옥민 2000) 점토대토기문화기는 다른 시대와 구분지을 수 있는 독립성이 있다.

그런데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에 인식되는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가 호남지방에 있어서 그 시대의 묘제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점토대토기문화기에도 청동기시대의 묘제가 잔존하고 있어, 지역마다 그 양상이 상이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남 지역의 지석묘에서 세형동검이나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전남동부지역은 지석묘가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주된 묘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초기문화와 관련있는 묘제로서 청동기시대이래의 석개토광묘나 석관묘에서 변형된 형식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영산강유역의 전남서부지역에는 지석묘가 일부 지속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른 단계의 토광묘나 적석목관묘가 조사되고 있어 전남동부지역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요컨대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에 있어 호남지방은 전북지역, 영산강유역(전남서부지역), 전남동부지역 등의 3개 지역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묘제간의 위계성을 살펴보는 것도 본고의 목적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적은 반드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았더라도 점토대토기와 공반되는 유물이 확인된 유적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II. 諸墓制의 檢討

1. 積石石槨墓

익산 다송리유적(전영래 1975)이 대표적이다. 다송리의 적석석곽묘의 구조는 청동기시대의 석관묘의 변형된 양식으로 보인다. 즉 금강유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관석을 세운 석관묘의 구조에서 할석을 평적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다송리 적석석곽묘가 청동기시대의 석관묘와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깊게 굴광하고 매장주체부를 마련한 점¹⁾과 치석된 대형 개석 1매를 사용하여 여러 매의 관석을 개석으로 사용한 일반적인 석관묘보다는 더 정성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아무런 바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전형적인 석관묘 양식과 비교하면 변형된 모습이다. 그리고 다송리 적석석곽묘의 개석 상부에는 할석이 쌓여 있었으며(積石), 할석 위에는 봉토가 있었다고 한다. 흑도와 무문토기가 足部에 부장된 것은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이은창 1967 ; 한국고고학회 1969)와 일맥 상통한다(전영래 1975). 괴정동 적석목관묘와의 차이점이라면 괴정동유적이 벽석의 구조가 석축이 아니라 불규칙한 크기의 할석을 다져 붙이는 방식이기에 목관을 전제로 한 외부 채움식 벽석이지만, 다송리유적은 할석을 평적하고 있다.

2. 石蓋土壤墓

前述한 다송리 유형의 적석석곽묘는 石蓋를 하고 壁石이 정연하다. 반면 전주 여의동 1호 석개토광묘(전영래 1990 ; 한수영 1996)는 石蓋하였지만 벽석이 정연하지 않고, 바닥석이 있다. 벽석이 축석한 것이 아니기에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같이 매장주체부에 木棺의 존재를 시사한다. 즉 여의동유적은 벽석의 구조가 석축이 아니라 불규칙한 크기의 할석을 다져 붙이는 방식이기에 목관을 전제로 한 외부 채움식 벽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안정되지 못한 채 드러난 할석들이 크기가 일정치 않고 벽석으로 이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다수이다. 또한 깊게 굴광(약 2m)하고 매장주체부를 마련한 점도 대전 괴정동 유적과 유사하다.

한편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전주 여의동 석개토광묘(1호)의 차이점은 목개(목관)와 석

1) 지하 약 1m 지점에서 장방형의 蓋石이 확인되었다.

개로 차별성이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적석과 바닥석의 유무이다. 여의동에서는 훼손의 여지는 있지만 적석이 없고, 바닥석은 여의동에서만 확인되었다. 여의동 석개토광묘의 바닥석은 앞선 청동기시대의 석개토광묘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속성으로 여의동 2·3호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여의동 석개토광묘는 전시기의 석개토광묘의 속성(石蓋 및 바닥석, 2단 토광²⁾ 등)을 유지하면서도 대전 괴정동의 적석목관묘의 일부 속성(깊은 굴광 및 목관 외곽에 충전석의 존재 등)이 결합된 양식이다. 또한 유물상에서도 유사한 면이 많다. 그래서 여의동 1호는 여의동 2·3호와 달리 새로운 묘제와 유물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의동 석개토광묘의 보고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의동유적이 대전 괴정동유적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첫째, 타원형 묘광을 파고 다시 장방형 묘광을 설치한 점(이단토광), 묘광 벽면에 할석을 축석하지 않고 때려 붙이는 '張着' 수법을 쓴 점, 괴정동의 묘광규모가 길이 2.2m, 폭 0.47m, 깊이 0.6m 로서 서로 비슷한 점, 둘째, 흑색장경호는 괴정동, 청원 비하리, 아산 남성리, 부여 구봉리 등에서 BI식 동검, 조문경을 표식으로 하는 유물과 공반하고, 셋째, 두 유적이 모두 조문경 범주의 다뉴경 2매씩을 공반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며 배면문양도 같은 계열이다. 넷째, 여의동의 소형 扇形銅斧, 동착 등은 괴정동에서는 볼 수 없었으나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부여 구봉리에서 동형의 銅斧가 나왔고 동착도 부여 구봉리, 대전 탄방동 등 금강유역권의 것과 흡사하다는 점이다(전영래 1990).

여의동 석개토광묘 3기 가운데, 1호는 부장유물과 축조방법에 있어서 2·3호와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2·3호가 청동기시대의 일반적인 석개토광묘와 관련되어 벽석이 없는 반면, 1호는 벽면에 석축한 것은 아니더라도 할석을 다져 붙였기에 내부에 목관을 전제로 하여 목관 외부에 할석으로 충전하였다고 보여진다. 1호의 경우, 積石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조사전에 이미 훼손이 심하였고, 구조나 유물상에서 대전 괴정동 같은 적석목관묘와 유사하다. 또한 여의동 1호는 여의동 2·3호나 완주 반교리(안승모·유병하·윤태영 1996)와 같은 일반적인 석개토광묘보다는 깊이가 더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깊은 굴광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유물상을 보여주는 대전 괴정동이나 아산 남성리와 연결된다. 개석도 대형판석을 사용한 여의동 1호는 일반적인 석관묘나 여의동 2호, 반교리 석개토광묘에서의 비교적 소형인 판석을 여러 개 사용한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 구릉의 정상부에 독립하여 입지하고 있는 1호에서는 흑도와 조문경이 출토되는 단계이지만, 구릉의 사면에 위치한 2호에서는 송국리형문화의 표식적인 일단병식

2) 이단 토광은 대전 괴정동유적에서도 확인되었기에 그 계통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마제석검이 출토되어 더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³⁾. 그래서 여의동 1호와 2·3호가 상호 계기적인 연결은 가능하지만, 동일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⁴⁾.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석개토광묘가 대개 掘壙한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깝다면 괴정동이나 여의동의 경우는 타원형이나 부정형에 가깝다. 반교리나 여의동 2·3호와 같은 석개토광묘는 군집성을 보이지만 여의동 1호나 괴정동, 예산 동서리 유적 등의 경우에는 독립되어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여의동 1호와 2·3호 석개토광묘가 상호 계승적인 측면이 인정되지만, 1호가 개별화된 상위계층의 묘제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여의동 1호 석개토광묘는 재지적인 묘제의 요소가 있지만 새로운 묘제와 물질문화(세형동검 및 점토대토기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支石墓

지금까지의 조사성으로 보면 전남지역은 전북지역과 달리 지식묘에서 세형동검이나 원형점토대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는 전남지역의 지식묘가 특이하게 많아 장기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下限 또한 타 지방에 비해 더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호남지방에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지식묘는 보성 송곡리(전남대박물관 1997 ; 조진선 1997)·동촌리(국립광주박물관 2001 ; 은화수 2001), 순천 평중리(이영문 1984 ; 임영진·이영문 1992), 영암 장천리(최성락 1984), 강진 영복리(서성훈·이영문 1983) 지식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보성 송곡리 지식묘 출토 원형점토대토기가 주목된다. 송곡리 지식묘군은 낮은 고개마루의 능선에 자리한다. 20기의 지식묘와 상석이 없는 5기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다. 지식묘군 사이에서 상석이 없는 3기의 묘곽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1기의 석관형 묘곽 내부(1호)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이 출토되었다. 1호 묘곽은 上石과 積石이 없고 매장주체부가 석관형이라는 점에서 지식묘군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축조되었다고 판단된다. 지식묘군은 입지적 조건과 하부구조에 사용된 석재와 하부구조의 축조방법의 변화로 보아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

3) 2호와 3호는 인접하고 있어 동일시기로 보여진다.

4) 유철은 여의동유적을 뚜껑돌이 있는 토광묘로 보고, 여의동유적이 토광묘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여 석관묘에서 토광묘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의동은 석관묘축조단계의 사회에 토광묘라는 새 묘제가 영향을 미치므로 준왕의 남천이나 위만조선이 성립하는 어느 시기로 보아 그 연대를 기원전 2세기중엽으로 편년하고 있다(유철 1996).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여의동유적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토광묘로 볼 것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이래의 석개토광묘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한다.

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대체로 고개마루에서 구릉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고인돌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호 석곽이 구릉정상부에 가까운 곳에 있어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릉정상부쪽에서 후대의 옹관묘(1기)와 토광묘(3기)가 확인된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송곡리지석묘군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1호는 석관형이며, 가장 늦게 축조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는 보성강유역의 지석묘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고, 가장 늦은 매장주체부 형식인 위석식·토광형·석관형 등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⁵⁾. 원형점토대토기의 편년이 기원전 4세기(후반)~2세기(중엽)로 비정된다면(박진일 2000), 전남동부지역의 늦은 단계의 지석묘는 기원전 3~2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전남동부지역의 지석묘에서 위석형이나 석관형, 토광형의 묘곽 배치를 보면 기존의 석곽형 묘곽열의 가장 끝에 있거나 석곽형 묘곽 사이에 들어가 있다. 위석형 묘곽의 上石은 小形이어서 기존의 석곽형 묘곽이 축조된 다음에 나중에 배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성 죽산리나 순천 우산리 지석묘가 대표적이다.

한편, 순천 평중리 지석묘와 영암 장천리 1호 지석묘 출토 세형동검은 결입부 이하에 등날이 없고 刃部와 基部가 둥글어 비파형동검의 전통을 이은 I 식 세형동검이다(이영문 1993 : 168-169).

강진 영복리 지석묘 주변에서는 흑색마연토기편이 발견되었다. 김해 내동리지석묘(김정학 1983)에서도 흑색마연토기가 출토된 바 있어, 영복리 지석묘의 흑색마연토기는 지석묘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이영문 1993 : 160).

그런데 지석묘의 지속연대에 대해 살펴보면, 전남지역 내에서도 전남서부지역과 전남동부지역의 양상이 다르다. 이에 대해 상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지역 지석묘에서 위석식의 묘곽이 가장 늦은 단계라고 보고 있다(최몽룡 1978). 이와 관련하여 산간 내륙지대인 보성강유역에서 위석식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⁶⁾.(이영문 1993 : 130-131) 이러한 측면은 전남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전남서부지역보다 지석

5) 보성강유역의 위석식 묘곽에서는 출토유물이 거의 없어 편년에 어려움이 있다.

6) 보성강 유역에서 위석형 묘곽이 확인된 대표적 유적은 다음과 같다. 즉 순천 우산리(최성락 외 1993), 보성 시천리 살치 '나'군(최성락 1988), 보성 죽산리 하죽 '다'군(송정현·이영문 1988) 지석묘 등이다. 살치 '나'군에서는 17기의 묘곽 가운데 8기가 위석형이며, 죽산리 하죽 '다'군은 35기의 묘곽 가운데 위석형이 16기이다. 순천 우산리 지석묘에서는 모두 33기의 묘곽 가운데 석곽형 14기, 토광형 2기, 위석형 17기로서 위석형의 비율이 특히 높다.

묘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전남지역의 지석묘들의 분포는 지형에 따라 다른데, 평야지대인 서해안이나 영산강유역(6331기, 38.7%)보다는 산악지대인 남해안이나 보성강유역(10,038기, 61.3%)에 지석묘가 훨씬 많으며 군집의 평균 분포수에 있어서도 전자와 후자가 각각 6.9기와 9.4기로 나타나 산악지대에서 지석묘가 더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농경을 배경으로 한 평야지대가 개방적이고 선진문화의 수용이 빠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묘제인 지석묘를 축조한 사회보다 변화에 민감했다고 보는 견해는(이영문 1993 : 288) 참고할 만하다. 실제로 전남지역에서 세형동검기의 신묘제인 적석목관묘가 확인된 지역이나 세형동검과 세형동부 등의 鎔范이 확인된 곳이 영산강유역이나 전남서북지역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임병태 1987). 요컨대 전남지역에서도 지석묘가 집중된 동부지역에 가장 늦은 형식의 위석형이 많다는 것은 보성강유역을 비롯한 전남동부지역이 한반도에서 가장 늦게까지 지석묘가 축조되어 지석묘가 많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지석묘가 타 지방에 비해 많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즉 다른 지역에서 빈출되는 청동기시대의 석관묘나 토광묘·옹관묘⁷⁾가 전남지역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동기시대에 전남지역에는 지석묘만이 주요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에 함평 용산리유적(최성락·김건수 2000)에서 석관묘 7기와 석개토광묘 3기가 조사되었다. 이 유적은 충청도나 전라북도에서 확인되는 석관묘나 석개토광묘와 연결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함평지역은 영광군이나 장성군과 더불어 전남 북서부지역에 위치하는데,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지역과 큰 산맥없이 평야지대로 이어진다. 이들 지역에는 전남지역에서는 특이하게 북방식계통의 지석묘가 산재하고 있어, 상호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즉 북방식 지석묘나 석관묘가 북쪽에서 파생되어 왔다는 점과 북방식 지석묘의 매장주체부가 석관형이라는 사실은, 전남 서북부지역이 북방식 지석묘의 남한계선이고, 영산강유역이 보성강이나 남해안 지역에 비해서 지석묘의 하부구조가 석관형이 많다는 점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전남지역의 다른 시·군보다 적다는 점도 이들 지역에 석관묘나 석개토광묘가 부분적으로 유행했을 것이라는 관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전남지역에서 전남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유역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석묘가 청동기시대의 지배적인 묘제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7) 1996년에 전남 곡성군 언화리(국립전주박물관 1996)에서 청동기시대의 옹관묘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그런데 옹관묘가 조사된 지역이 지석묘군 틈에 포함되어 있어 소아용의 매장시설로 추정되어 부수적인 묘제로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남서부지역에는 영광 군동 4호와 같은 비교적 이른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토광묘가 유입되어 전남동부지역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지석묘가 종말을 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남지역에 비해 전북지역의 지석묘는 훨씬 적은 수치이다. 전북지역에는 현재까지 1,660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전북지역에서 지석묘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서해안에 인접한 고창지역인데, 전체 지석묘의 72%인 약 1,200기가 산재하고 있다(이송래 1999). 전북에서 가장 서남쪽에 치우쳐 있는 고창지역은 전남 서부 해안지역과 지리적·지형적으로 연접하고 있고, 지석묘의 밀집도가 대단하여 다른 전북지역과 달리 전남지역의 지석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남지역과 유사하게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지석묘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남동부지역에는 지석묘 사회의 마지막 단계로서 대형의 매장주체부를 갖추고 있는 보성 조성면 동촌리 지석묘(국립광주박물관 2001)가 있어 주목된다.

보성 동촌리 지석묘는 단순히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의 유물이 혼입된 다른 지석묘에 비해 유구의 구조에서 특이하다. 동촌리 지석묘는 창원 덕천리 지석묘(이상길 1993)처럼 지하에 거대한 매장주체부(석관)와 여러 겹의 積石이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지석묘보다는 훨씬 대규모이다. 그 시기는 창원 덕천리 지석묘의 경우와 같이 늦은 단계로 판단된다. 박순발은 덕천리지석묘군이 지석묘사회의 마지막단계로서 대략 기원전 4세기대로 보고, 世帶共同體간에 우열이 생기면서 유력한 世帶共同體의 家長의 주도로 일정한 지역을 통합한 農耕共同體의 長이 부상할 무렵의 지석묘들로 보고 있다(박순발 1997). 동촌리 지석묘가 송국리형 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된 점에 근거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지석묘임을 알 수 있다. 전남지방, 특히 전남동부지역의 지석묘에서 석곽형보다 석관형이 지석묘군의 가장자리에 자리하면서 늦은 시기의 매장주체부임을 감안하면 동촌리 지석묘는 늦은 단계임을 암시한다. 또한 동촌리 1호 지석묘의 매장주체부(석관형)내에서는 소형 管玉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러한 소형 관옥은 세형 동검 초기 무덤인 아산 남성리(한병삼·이건무 1977)와 예산 동서리(지건길 1978) 유적에서도 다량 확인되었기에 동촌리 지석묘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기원전 4~3세기에 편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성 동촌리 지석묘는 지하 3m에 2단의 토광을 굴착한 점, 積石施設 등은 대전 괴정동의 積石木棺墓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⁸⁾. 양 유적이 비슷한 시기로 편년되기에 보성 동촌리

8) 보성 동촌리 지석묘에서 석관형 매장주체부 내에 목관의 존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구조의 창원 덕천리 지석묘의 석곽내에서 목관이 존재하고 있어 동촌리에서도 목관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석묘의 축조시에 괴정동과 같은 적석목관묘의 일부 축성이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⁹⁾. 한편 예산 동서리 적석석관묘의 경우는 판석재를 여러 때 세워 벽석을 마련한 石棺形인데, 그 위에 나무판이 덮히고 적석된 것으로 판단된다(지건길 1978). 이러한 적석석관의 구조와 더불어 출토유물 가운데 다량의 관옥(104점)과 소옥(22점) 등은 보성 동촌리와 관련성이 보인다. 그래서 積石이 있고 깊은 이단 묘광을 보여주는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더불어 예산 동서리 적석석관묘는 동촌리 지석묘의 하부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보성 동촌리 지석묘는 외형상의 상석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하부구조를 새로운 묘제의 것을 부분적으로 채용하는 지배층의 보수적인 측면을 견지하고 있다¹⁰⁾.

4. 積石木棺墓

積石木棺墓는 語義上으로는 목관을 시설하고 그 위에 적석을 한 묘제이다. 현재까지 호남 지방에서 적석목관묘라고 알려진 것은 화순 대곡리(조유진 1984), 함평 초포리(이건무·서성훈 1988), 장수 남양리(지건길 1990 ; 윤덕향 2000) 유적 등이다. 이들 유적은 대개 기원전 3~2세기로 편년되고 있다¹¹⁾.

내부 구조를 보면 목관은 부식되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목관 외부와 토광 사이의 충전석 때문에 석곽묘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측벽은 대개 쌓은 것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태가 비정연하다. 그런데 그 세부 구조를 보면 상이한 양상들이 보인다. 적석목관묘의 토광

9) 이경순은 보성 동촌리와 흡사한 덕천리 지석묘의 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土壙積石墓(積石木棺墓)의 적석상태, 묘광의 깊이가 깊은 점, 목관의 존재 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점으로 볼 때 요녕지방이나 북방지역 토광적석묘의 한 갈래의 영향이 한반도 서남부지방까지 파급되어 최말기단계의 지석묘 사회까지 그 영향이 가미되었을 뿐만 아니라 괴정동 유형과 같은 토광적석묘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경순 1994).

10) 시대는 다르지만, 지배층의 묘제가 보수적인 면을 보이는 것은 고구려적석총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고구려적석총에서 늦은 단계의 지배층 묘제인 장군총은 외형상의 특징이 전통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내부 매장주체부는 새로운 양식인 횡혈식 석실분의 요소를 채택하고 있다.

11) 영남지방에서 알려진 적석목관묘는 경주 조양동 5호묘와 김해 양동리 70호묘, 대구 팔달동 유적 등이 있다. 그 외에 유구형태가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청동유물수습자료의 유구 중 상당수가 적석목관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남지방에서는 적석목관묘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단계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중서부나 호남지역에서 이른 단계의 적석목관묘가 다수 조사된 것과는 상이하다. 특히 팔달동유적은 청동령 등 청동의기가 소멸되고 철기류가 다수 부장되고 적석구조가 점차 퇴조하고 있어 기원전 2세기후반~1세기 후반에 편년되고 있다(박승규 1998).

깊이와 段을 살펴보면, 대곡리가 이단토광이어서 전북지역의 여의동 석개토광묘나 호서지역의 이른 시기의 적석목관묘인 대전 괴정동 유적과 관련지어진다. 대곡리 다음 단계의 초포리와 남양리는 1단토광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토광의 깊이는 이른 시기인 대곡리유적이 130cm에 달하여 비교적 깊고, 상대적으로 늦은 초포리와 남양리는 50~60cm에 불과하다. 초포리와 남양리 단계에는 깊이가 얕아짐으로써 이단토광이 아니라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광하고 있다.

목관의 구조는 명확치 않다. 다만, 화순 대곡리유적유적의 목관은 통나무관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통나무관은 남부지역 다호리 유적같은 원삼국시대 초기의 목관묘에서도 확인된다(이건무 1999). 매장주체부의 뚜껑시설을 보면 대곡리유적이 판석형의 개석이 상정되기에 여의동 석개토광묘나 다송리 적석석곽묘와 연결된다. 아울러 청동기시대 이래의 지석묘나 석관묘의 石蓋와도 관련되어, 전남지방의 이른 시기의 적석목관묘는 재지적인 무덤양식이 어느 정도 가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호서지방의 이른 시기의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리고 목관 외부의 벽석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른 대곡리유적의 경우가 초포리나 남양리에 비해 좀 더 정연하여 전 시기의 석관묘나 지석묘의 영향이 잔존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포리나 남양리 단계에는 石蓋가 없이 木棺이나 木蓋시설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石蓋가 퇴화되는 것은 토광묘의 파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적석목관묘는 대개 낮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로 비정되는 장수 남양리 유적은 강변의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5. 土壙(木棺)墓

현재까지 조사된 토광(목관)묘로는 익산 신동리 2기(최완규 1998·2000), 순천 용당동 1기(최인선·이동희 2001), 영광 군동 2기(김영희2000 ; 한옥민2000 ; 최성락·이영철·한옥민·김영희2001), 익산 평장리 1기(전영래 1987 ; 한수영 1996 ; 유철 1996) 등이 있다. 이들 토광묘는 대개 구릉 사면부에 입지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혹은 말각장방형이다. 영광 군동 토광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어 등고선과 나란한 용당동 토광묘와는 차이점이 보이지만, 동-서 장축방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군동 유적의 경우는 '토광묘'라고 칭하고, 익산 신동리 유적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토광직장묘'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 용당동 유적을 보면 충전토의 존재로 목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동리유적의 보고자는 토광직

장묘라고 보고 있지만 거의 삭평된 상태에서는 목관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용당동의 토광묘관묘의 예를 보면 목관이 시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광 군동 3호 토광묘의 경우에도, 유물이 토광묘의 양쪽 장벽 가장자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바닥면에서 회백색의 찰진 점토가 깔려 있어 목관의 존재를 시사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광묘는 목관을 시설한 토광묘관묘일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을 보면 신동리유적에서 細形銅劍과 鐵斧·鐵鏃등의 鐵器類, 삼각구연점토대토기 등이 공반된 반면에, 군동 3호 토광묘에서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와 鐵鏃가, 군동 4호 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석착 등이, 순천 용당동 유적에서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와 홍도가 출토되었다. 약간의 시기차는 있지만 세형동검과 철기류가 출토된 신동리유적이 상대적으로 上位의 墓로 판단된다.

연대상으로 보면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영광 군동 4호 토광묘가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된다. 군동 4호 토광묘의 원형점토대토기는 胴體大徑이 중하위에 위치하고 口緣端 內側은 內傾하였다. 이러한 속성과 더불어 器高로 보면 보성 교성리 3호 주거지 출토품과 유사하여 기원전 3세기 전엽에 편년된다(박진일 2000). 지금까지 알려진 호남지방의 원형점토대토기 가운데서는 가장 이른 단계인 것이다.

한편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익산 신동리 토광묘 1·2호, 영광 군동 3호 토광묘, 순천 용당동 토광묘 등이다. 이들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편년과 관련하여 대구 팔달동 유적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변천에 대한 논고를 참고해 본다(박진일 2001). 삼각구연점토대토기는 동체대경이 동체 중위에 있는 것(I식)과 동체상부 혹은 구연이 가장 넓은 것(II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동체대경이 중위에서 상위로 이동하고 기고에 비해 구경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변화를 상정한다. 형식을 좀 더 세분하면 Ia식(I식의 동체, 기고에 대한 구연의 비가 1:0.7이하), Ib식(I식의 동체, 기고에 대한 구연의 비가 1:0.7이상), IIa식(II식의 동체, 기고에 대한 구연의 비가 1:0.75~0.85), IIb식(II식의 동체, 기고에 대한 구연의 비가 1:0.85이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형식의 상대서열과 편년은 Ia식(기원전 2세기후엽~1세기 1/4분기)→Ib식(기원전 1세기 2/4분기)→IIa식(기원전 1세기 3/4분기)→IIb식(기원전 1세기 4/4분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호남지방의 토광묘 출토 삼각구연점토대토기를 편년해 보자. 우선, 군동 3호 출토품은 器高에 대한 口緣의 比가 1:0.74이고, 동체대경이 중위에 있어 기원전 1세기 2/4분기에 편년된다. 그리고 용당동 토광묘 출토 2점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는 器高에 대한 口緣의 比가 1:0.83-1.09이고, 동체대경이 동체상부 혹은 구연이 가장 넓다

(Ⅱ식). 따라서 기원전 1세기 후반, 혹은 좀 더 범위를 축소하면 기원전 1세기 4/4분기에 비정된다. 그런데 신동리 출토품은 구연은 삼각형에 가깝지만 기형상 원형점토대토기와 연관되기에 팔달동유적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보다는 이른 시기로 편년된다. 즉 동체대경이 중위가 아니라 중하위에 있고, 공반유물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기원전 2세기중엽으로 비정된다(박진일 2000).

이상과 같이 원형점토대토기가 부장되는 이른 시기의 영광 군동 4호 토광묘는 기원전 3세기까지 올려볼 수 있고, 늦은 형식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용당동 토광묘 유적은 기원전 1세기 후엽으로 비정된다. 요컨대 토광묘 유적의 축조순서 및 편년은 영광 군동 4호(기원전 3세기 전반)→익산 신동리(기원전 2세기 중엽)→영광 군동 3호(기원전 1세기 2/4분기)→순천 용당동(기원전 1세기 후반) 순으로 볼 수 있다.

6. 甕棺墓

옹관묘는 광주 신창동 53기(김원룡 1964), 광주 운남동 2기(조현종 외 1996), 무안 인평 1기(최성락·이영철·한옥민 1999), 함평 장년리 3기(최성락·이현종 2001), 익산 어양동 1기(호남문화재연구원 2001) 등이 조사되었는데, 익산 어양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산강유역이나 전남 서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單甕式과 三甕式도 소수 있으나 대개 合口式이다. 합구식은 대부분 송국리형 토기와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결합된 것이 다수이다. 옹관의 장축은 동-서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頭向은 동쪽이 많다. 대형이 아닌 소형 옹관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위신분의 묘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부장유물은 거의 없거나 토기에 한하는 薄葬이어서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옹관묘에 사용된 삼각구연점토대토기는 토광묘에 부장된 삼각구연점토대토기에 비해 대형이며, 대부분 동체대경이 중위에 있다. 또한 기고에 대한 구연의 비가 1:0.3~1:0.6정도인 경우가 많아 상한이 기원전 2세기 후엽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운남동 4호 옹관묘인 경우에는 器高에 대한 口緣의 비가 1:0.79이고, 구연이 동체대경보다 넓은 형식이어서 비교적 늦은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비정된다(박진일 2001).

동시기의 토광묘와 비교해보면 부장유물이 빈약하고, 규모도 훨씬 작은 편이다. 무덤축조에 든 노동력을 감안하면 토광묘나 주구토광묘에 비해서 하위신분의 묘제일 것이다. 이는 철기시

대 후기 이후에 영산강유역 주구묘에서 옹관이 매장주체부가 아니라 주구에 배장되고 있는 점에서도 傍證된다.

그리고 이들 옹관묘는 영산강유역에 집중되고 있어, 옹관묘가 거의 조사되지 않은 전남동부 지역의 墓制가 달랐음을 시사한다. 즉 전남동부권은 용당동 토광묘에 이어 3~4세기대의 순천 요곡리·보성 송곡리·고흥 한천리·석봉리 토광묘들이 확인되고 대형옹관묘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남동부지역이 이른 시기부터 옹관묘보다는 영남지방과 같이 토광(목관)묘를 주묘제로 채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7. 周溝墓¹²⁾

고창 광대리 7호 주구묘(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고, 영광 군동 18호 방형 주구묘(목포대박물관 1999 : 한옥민 2000)는 비교적 깊은 토광안에 木棺을 갖추고 있으면서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다. 호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편년되는 이들 주구묘는 철기시대 후기인 1~3세기의 호남지역 주구묘의 기원과 관련된다(임영진 2001).

현재까지 확인된 周溝墓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보령 관창리 유적(윤세영·이홍중 1997)이 있다. “관창리 KM437 주구묘는 石棺을 매장주체부로 하고, 원형점토대토기 1점, 腰部 이하가 결손된 흑색마연장경호 1점, 倣製鏡 2점, 다수의 대롱옥이 출토되었다. 원형점토대토기는 관창리유적에서는 KM404·KM423·KM437·KM470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중에 KM404·KM423·KM437은 매장주체부가 확인된 것들이다. KM404와 KM423은 철도자·철촉·철모 등 철기류가 공반하고 있다. KM437 주구묘는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석관묘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조합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형동검을 비롯한 儀器的인 청동기를 공반하는 괴정동 석관묘 등의 전형적인 圓形粘土帶土器文化期보다 약간 뒤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원형점토대토기시기의 후기 혹은 말기에 철기문화의 영향

12) ‘周溝墓’는 다른 무덤의 명칭과는 달리 주변시설에 주안점을 둔 용어이기에 호칭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주구묘의 매장주체부가 토광묘인 경우가 많기에 주구토광묘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매장주체부가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령 관창리 유적처럼 매장주체부가 석관이어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통용되는 ‘주구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을 받은 시기로, 기원전 2세기초로 편년된다”(이원광 2000).

이와 같은 견해를 참고하면 고창 광대리와 영광 군동 주구묘는 서해안을 통하여 충청도지역의 早期 周溝墓와 연결되며, 관창리 이후 단계인 기원전 2~1세기로 추정되어 호남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주구묘로 판단된다.

Ⅲ. 段階의 設定

점토대토기문화는 주지하듯이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삼각구연점토대토기문화로 구분된다. 원형점토대토기는 대개 기원전 4세기에서 2세기대까지(신경철 1980 ; 한상인 1981 ; 박진일 2000), 삼각구연점토대토기는 기원전 2세기중엽부터 기원전후한 시기 혹은 기원후 1세기대에 각기 편년되고 있다¹³⁾(신경철 1980 ; 한상인 1981 ; 정징원·신경철 1987 ; 안재호 1989 ; 박진일 2001).

호남지방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묘제를 유물상과 관련지어 보면 4단계로 구분된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편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단계가 일정한 과도기를 거친다고 보여지기에 각 단계사이에는 단절적이지는 않다.

1. I 단계

I 단계는 粗文鏡, 扇形銅斧¹⁴⁾, 靑銅笠形飾具, 靑銅圓形飾具, 細形銅劍, 小形의 管玉, 黑色長頸壺, 圓形粘土帶土器 등이 확인된다. 한반도에 원형점토대토기와 흑색장경호가 등장하는 것은 세형동검을 위시한 각종 청동기와 그 軌를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원형점토대토기 및 각종 청동기는 중국요녕지방에서 그 연원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는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고고학적 상황을 미루어 보아 중국 요녕지방에서 해로를 거쳐 한반도로 직접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진일 2000). I 단계는 편년상으로 기원전 4~3세기(전반)에 해당한다

13) 본고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편년관에 근거하고 있지만 수정의 여지가 있다. 특히 원형점토대토기의 上限의 경우, 남한지역 일부유적에서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가 기원전 5세기를 상회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자료들이 축적되면 점토대토기문화의 출현시기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14) 扇形銅斧는 비파형동검문화기 이래의 유물이다. 비파형동검문화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선형동부가 有肩銅斧에 비해서는 이른 시기임이 분명하다.

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전북지역에서 전주 여의동 1호 석개토광묘, 익산 다송리 적석석곽묘와 전남지역에서 세형동검¹⁵⁾, 원형점토대토기, 흑도, 소형 관옥 등이 출토되는 지석묘¹⁶⁾와 영광 군동 4호 토광묘 등이다. 이 단계에 호남지방은 호서지역과 달리 적석목관묘가 바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재지적인 묘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 과도기를 거쳤음이 확인된다.

전주 여의동이나 익산 다송리 유적에서는 조문경과 선형동부, 흑색토기장경호가 공반되어, 기원전 4~3세기(한국식동검문화기 I 기)로 편년된다(이건무 1999). 여의동과 다송리 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동시기의 비슷한 공반유물상을 보이고 있는 괴정동, 남성리, 동서리 등의 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었기에 같은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I 단계에서 유일하게 기형을 알 수 있는 원형점토대토기는 영광 군동 4호 토광묘 출토품으로서, 기원전 3세기 전반경에 해당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원형점토대토기이다. 보성 송곡리 지석묘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지만 片이어서 기형을 알 수 없다.

共히 I 단계에 속하지만 전남지역의 지석묘와 전북지역의 익산 다송리 적석석곽묘·전주 여의동 석개토광묘는 차별성이 있다. 전남지역의 지석묘에서 세형동검이 부장되는 것은 묘제의 변화는 없이 새로운 위신재로서 세형동검을 부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⁷⁾. 다만, 보성 동촌리 지석묘의 경우는 상석을 제외한 지석묘의 하부구조가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나 예산 동서리 적석석관묘의 영향이 보이고 유물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유사성이 보이기에 일부 상위 지석묘는 새로운 묘제의 영향하에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촌리 지석묘는 지하에 거대한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고 있어 동시기의 위석형, 토광형, 혹은 석관형의 말기 지석묘 매장주체부에 대해서는 상위의 지배층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반면 전북지방의 익산 다송리 적석석곽묘나 전주 여의동 석개토광묘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석관묘나 석개토광묘에서 변형된 구조로서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의 관련성이 일부 보이고 유물상에서도 종래의 청동기시대의 부장유

15) 순천 평중리 지석묘와 영암 장천리 1호 지석묘 출토 세형동검은 결입부 이하에 등날이 없고 刃部와 基部가 등글어 비파형동검의 전통을 이은 I 식 세형동검이다(이영문 1993)

16) 원형점토대토기나 흑도의 경우, 기형에 따라 편년의 폭이 있다. 전남지방 지석묘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는 片이어서 기형을 알 수 없기에, I 단계보다 연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7) 전남지방에서 지석묘와 세형동검과의 관계는 기존의 지석묘 축조집단이 세형동검 등 청동기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세형동검 등의 발달된 청동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최성락 2002).

물조합상과는 다른 粗文鏡, 扇形銅斧, 흑색장경호, 笠形飾具, 圓形飾具 등이 확인된다¹⁸⁾. 요컨대 유물상으로만 보았을 때, 전북지역의 여의동이나 다송리 유적이 세형동검문화 및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세례를 직접적으로 받았다면, 전남지방의 지식묘는 그러한 영향이 간접적으로 미쳤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上記한 墓制로만 보았을 때는, 대전 괴정동의 적석목관묘와 달리 전시대의 묘제와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기에 피장자들은 유이민이라기보다는 토착인일 가능성이 크다¹⁹⁾.

부연하면, I 단계에는 지식묘, 석개토광묘, 적석석관묘 등의 청동기시대 묘제에 새로운 적석목관묘의 속성이 일부 도입되었지만, 청동기시대의 묘제를 계승하고 있다. 반면에 충남지역에서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같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초기단계의 신묘제가 과도기과정이 없이 바로 출현함은 유이민의 이주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적석목관묘를 축조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주체는 충남일원에 먼저 이주하였고, 이후에 점차로 점토대토기문화와 더불어 묘제가 호남지방에까지 파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호남지방에 있어서도 충남지역과 더 인접한 호남 서북부지방에서 대전 괴정동과 동일한 적석목관묘가 조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성 동촌리식의 대형지식묘가 경남과 전남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것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더불어 적석목관묘의 전파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루어졌고 지식묘 전통이 오랫동안 잔존하였던 전남이나 경남지역에서 묘제의 결합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묘가 성행하였던 전남이나 경남 같은 지역의 上層 支石墓 築造集團은 지식묘 체제(구조)내로 新墓制를 흡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광 군동 4호 토광묘에서는 기형상 기원전 3세기 전반기의 비교적 이른 시기의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거의 동시기의 다른 묘제에서 세형동검이나 동경, 관옥 등의 위신재가 부장되는 것에 비해서는 유물이 빈약하기에 신분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익산 다송리와 전주 여의동 유적 출토 유물을 대전 괴정동이나 예산 동서리유적 등과 비교하면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차별성이 있다. 즉 양자는 다뉴조문경·후도장경호·선형동부·소형관옥 등의 출토유물에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자팔형동기·동탁·검파형동기·방패형동기 등은 후자에게서만 확인된다. 이는 세형동검 및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파급에 있어 호남지방이 주변지역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9) 한반도 서남부지역에 분포하는 적석목관묘(적석석관묘)의 기원을 요녕지방이나 북방지역에 두고,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한반도로 이주한 유이민에 의해 묘제가 파급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경순 1994).

2. II 단계

II 단계는 細文鏡과 細形銅劍, 有肩銅斧, 靑銅鈴, 天河石製 飾玉 등이 출토된다. 호남지방에서는 한국식동검문화기 II기에 속하는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 적석목관묘가 해당된다(이건무 1999). 편년상으로는 기원전 3세기~2세기초·전반경이다(이건무 1992). 그런데 대곡리와 초포리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III 단계까지 원형점토대토기가 잔존하고 있기에 II 단계에도 원형점토대토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는 묘곽의 상면에 판상의 석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없는 초포리보다 이른 시기로 보인다. 석개는 청동기시대의 지식묘나 석관묘의 잔존 형태이므로, 같은 적석목관묘이지만 석개한 적석목관묘가 이른 양식이다. 이는 유물조합상에서도 뒷받침된다. 초포리유적에서는 동령류 중 팔주령이 소멸하고 간두령이 잔존하는 단계로서 대곡리유적보다는 늦은 시기이다(이건무 1992).

대곡리와 초포리 적석목관묘에서는 다뉴세문경이 출토되었는데, 세문경은 요녕지방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한반도와 일본에서만 보인다(이청규 1999).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대곡리와 초포리 적석목관묘는, 요녕지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상이한 점이 있어 어느 정도 토착화가 이루어진 단계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다뉴조문경이 출토되는 I 단계를 요녕지방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점토대토기문화가 파급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다뉴세문경이 확인되는 II 단계 이후는 점토대토기문화의 토착화가 진전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도 전남지역에서는 지식묘가 잔존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무안 월암리 지식묘 출토 曲玉은 함평 초포리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이다(최성락 2002).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전남지역(특히 전남동부지역)에 늦은 단계인 위석형, 토광형, 석관형의 묘곽이 많다는 점은 주목되는 사항이다.

3. III 단계

III 단계는 細形銅劍²⁰⁾, 劍把頭飾, 細文鏡 외에 鑄造鐵器類(鐵斧·鐵鎚 등)가 나타난다. 그리고

20) 세형동검은 형식상 I식(등대에 세운 稜角이 결입부 이하에 미치지 않은 것)이 II식(능각이 결입부 이하에 미친 것)보다 먼저이지만, 남성리유적에서는 I식 세형동검이 II식의 제작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사용되어지고, 남양리유적에서는 I식이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어 철기와 공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세형동검의 형식만으로 유적의 편년을 설정하는 것은 힘들다(노미선 1998).

청동기시대 이래의 천하석제나 벽옥제 玉 뿐만 아니라 유리제 玉도 공반되고 있다. 한편 토기는 늦은 단계의 흑도와 원형점토대토기이거나 원형점토대토기의 기형이 잔존한 초기 삼각구연점토대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다. 편년상으로는 기원전 2세기초를 제외한 2세기전반에서 2세기 중엽까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장수 남양리 적석목관묘와 익산 신동리 토광묘 등이다. 적석목관묘의 후기이면서 토광묘가 확산되는 단계이다. 또한 이 단계는 주구묘가 출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²¹⁾. 장수 남양리 유적의 편년에 있어서는, 철기문화 등장의 직접적인 동인으로 고조선 준왕의 남천(기원전 195~180년)을 상정할 수 있어 기원전 2세기초를 제외한 2세기 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박진일 2000). 한편 이건무는 남양리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기류가 요동반도의 연화보유적과 평북 영변의 세죽리유적의 유물조합상과 흡사하여 기원전 2세기 전반으로 비정하고 있다(이건무 1990). 그리고 철기와 청동기의 공반관계가 남양리와 유사한 신동리 유적은 출토토기가 원형점토대토기의 기형을 지닌 이른 단계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로 볼 수 있기에 기원전 2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박진일 2000).

앞 단계인 대곡리나 초포리에서는 의기화된 청동기로서 동령이나 간두령이 부장되지만 남양리나 신동리에서는 이러한 유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초포리나 대곡리에서 보이는 동부나 동사 대신에 남양리와 신동리에서는 철부나 철사로 부장양상이 변화된다. 또한 남양리나 신동리에서는 점토대토기가 부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장유물의 차이는 청동기문화 후기단계에서 철기문화로 변화되는 것으로 시기적인 혹은 지역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듯하다(최완규 2000).

4. IV단계

IV단계는 옹관묘, 토광(목관)묘가 주된 묘제로서 원형점토대토기가 거의 사라지고 삼각구연점토대토기문화가 주를 이루는 단계이다. 옹관묘에서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와 함께 송국리형 토기기형이 조합을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 단계는 토광묘의 영향으로 積石이나 石蓋, 圍石 등의 시설이 결여된 순수 목관묘계나 옹관묘 외에 주구묘가 확인된다. 앞선 단계와 비교하면 세형동검·세문경 등 청동기의 부장이

21) 고창 광대리 주구묘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보령 관창리 주구묘와의 관련성에서 보면 비교적 늦은 기원전 2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

드물고, 토기가 부장유물의 주를 이룬다. 토기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 외에 늦은 단계의 홍도와 흑도가 보이고 있다. 연대는 기원전 2세기 중·후엽에서 기원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 적석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데, 이는 토광묘의 보급과 관련된다(임영진 2001). 적석목관묘에서 토광목관묘로의 이행에는 적석의 유무라는 측면 외에 목관보강에 있어서 할석류의 석재 대신에 흙으로 충전하였다는 점이다. IV단계에는 늦은 단계의 홍도와 흑도가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영광 군동 주구토광묘 출토 흑도는 저부나 동체부의 형태상 홍도와 관련된다. 그런데 이 흑도의 경부 길이와 외반정도로 보면, 장수 남양리 적석목관묘의 흑도와 유사하여 주목된다²²⁾. 남양리에 비해 더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신창동 저습지 출토 흑도(국립광주박물관 1993)는 구연외반도가 약하고 경부가 조금 더 짧아진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후반대로 편년되는 순천 용당동 홍도는 흑도의 영향을 받은 얇은 굽이 있고, 직립에 가까운 짧은 구연부를 형성하고 있다²³⁾. 군동 출토 흑도가 관위에 부장됨은 용당동의 홍도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군동 주구묘 출토 흑도의 구연이 남양리 출토품의 그것과 연결되는 면이 있고, 홍도의 기형을 가진 변형된 양식이기에 기원전 2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1세기 전반대로 편년해 볼 수 있다. 하한의 근거는 가장 말기 단계(기원전 1세기후반)의 순천 용당동 토광묘 출토 홍도보다는 이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호남지방의 흑도의 변천을 보면 경부가 긴 전주 여의동유적을 기점으로 경부가 점차 짧아지면서 구연의 외반도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흑도 장경호의 후기 단계에는 말기 단계의 홍도와 기형상 상호 밀접하게

22) 금강유역 및 호서지방의 이른 시기의 흑도장경호의 변천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즉 구경부가 직립하다가 외반하면서 점차 길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동체부는 球形에서 편구형으로 바뀐다(최종규 1995). 예컨대 아산 남성리 유적에서 청원 비하리 유적으로의 변천이 그것이다. 하지만 늦은 단계의 원형점토대토기유적인 장수 남양리나 삼각구연점토대토기단계의 광주 신창동 저습지 유적의 흑도장경호는 경부가 짧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3) 용당동 토광묘 출토 홍도는 청동기시대의 지식묘와 석관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홍도와 비교하면 기형에 있어 상이하다. 특히 구경부가 짧고 직립에 가까우며, 저부가 좁고 낮은 평저라는 점이 주목된다. 평저의 낮은 굽은 흑도장경호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중전까지는 교성리 주거지(국립부여박물관 1987)와 옥중면 떡밭골(조영제 1983), 조도패총(국립중앙박물관 1976)의 예에서처럼 무문토기형 단도마연토기만이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무문토기시대 후기전반까지 맥을 잇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형 단도마연토기의 소멸은 남부지방에 밀려든 세형동검문화의 영향으로 여겨지며, 세형동검문화와 함께 신출한 흑색마연토기가 부장용기로서 전형 단도마연토기의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추정하였다(하인수 1989). 이처럼 삼각구연점토대토기단계에는 단도마연토기가 소멸되었다고 인식되었으나, 용당동이나 광주 치평동(임영진·서현주 1997)의 조사성과로는 흑색마연토기가 성행하는 시기에도 전남지방에는 지역적으로 홍도가 잔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용당동 출토품은 전형적인 홍도가 아니라 말기에 흑도의 영향하에 만들어진 마지막 단계의 홍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익산 평장리 토광묘에서는 前漢鏡이 출토되어 IV단계의 토광묘 연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전한경의 유입시기가 漢四郡의 설치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원전 1세기대로 볼 수 있다(이청규 1983 ; 심봉근·박은정 1992).

IV. 墓制의 地域性

1.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

호남지방에서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의 주된 墓制로는 청동기시대이래의 지석묘, 석개토광묘, 석곽묘 외에 새로이 출현한 적석목관묘, 토광(목관)묘, 주구묘 등이 알려져 있다²⁴. 이 가운데 우월한 위신재가 출토되는 지석묘, 석개토광묘와 석곽묘 등은 청동기시대 이래의 묘제에 積石과 깊은 墓壙이라는 새로운 속성이 가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형점토대토기문화라는 외래의 문화가 도래하였지만, 호남지방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도입기(세형동검문화기 I기)부터 급속하게 묘제가 변화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 단계의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I단계)에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이 묘제가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앞 시기인 청동기시대의 묘제가 지역별로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즉 청동기시대에 전북지역은 전남지방에 비해 지석묘가 상대적으로 적고 석관묘나 석개토광묘, 옹관묘 등의 묘제가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완주 반교리(안승모 외 1996), 진안 모실(김승욱 1999), 진안 수좌동(이재열 1999), 진안 여의곡(김승욱·이종철 2000), 진안 망덕(호남문화재연구원 2000), 익산 석천리(이건무·신광섭 1994) 등의 유적이 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지석묘만이 지배적인 묘제라고 보여진다(이동희 2002). 전남지역의 지석묘에서는 세형동검이나 원형점토대토기, 흑도가 출토되는 경우가 있고, 전남동부지역은 지석묘가 가장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전북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지석묘에서 세형동검이나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된 경우가 없고, 이른 단계의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의 유물은 석개토광묘, 적석석곽묘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24) 적석목관묘, 토광묘, 주구묘 등의 기원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제지적인 묘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구묘의 이른 양식이 중국에서 확인되고(최완규 2002), 적석목관묘의 기원이 요녕지방과 관련된다는 견해(이경순 1994)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에서 이 단계의 주목되는 유적이 보성 동촌리 지석묘이다. 보성 동촌리 지석묘 축조단계에, 상대적으로 下位의 지석묘는 상석이 없거나 소형의 위석식이나 토광형, 석관형의 매장주체부이기에 대조적이다. 이러한 매장주체부는 얇게 굴광하고 적석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석묘 내에서 위계화가 진전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서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화순 대곡리나 함평 초포리 적석목관묘단계(Ⅱ단계)에 이르면 청동기시대 전통을 가진 과도기의 묘제와 다른 신묘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곡리와 초포리 적석목관묘는 호서지방의 이른 단계의 적석목관묘와 비교해보면 다소 변형된 모습이어서 어느 정도 토착화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가 진전되면 호서지방과 더 인접한 전북지역에서 대곡리단계나 좀 더 이른 시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도 지석묘의 전통이 오랫동안 잔존한 전남동부지역은 구래의 지석묘가 일부 지속된 듯하다. 그런데 같은 전남지역이지만 전남서부지역에는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토광묘가 확인되어 전남동부지역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지석묘가 종말을 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전남지역에서 전남동부지역과 전남서부지역(영산강유역)간의 墓制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적석목관묘와 토광묘, 주구묘가 서해안의 평야지대를 통해서 내려온 외래의 묘제임을 염두에 두면 전남동부지역이라는 산악지대에는 그 파급이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해안 평지를 통해서 쉽게 전파되던 문화의 흐름이 전남동부지역이라는 산악지대에서는 그 파급이 미미하여 기존의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는 전남동부지역에서 지석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었다는 점과도 궤를 같이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남동부지역이 문화 전파의 종착지였고, 청동기시대 이래의 지석묘가 장기적으로 사용되어 신묘제와 관련 문화를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보수성에 기인할 것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지석묘의 하한이 늦다는 것은 적

25) 소수의 有力者를 위하여 거대한 지석묘를 축조한 것은 지배·피지배층이 형성된 단계임을 시사한다. 즉 전남동부지역에서 동촌리 지석묘 유형이 늦은 단계의 지배층의 무덤이었다면 비슷한 시기의 위석형의 묘곽은 약식화된 매장주체부이면서 薄葬이다. 이렇게 지석묘 내에서도 소수의 지배층의 거대한 묘와 다수의 위석형의 지석묘가 분화됨은 신분상의 분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즉 위석형의 지석묘는 상대적으로 하위의 신분으로 판단되며, 다량의 유물이 부장된 동촌리 같은 대규모 지석묘는 소수 상위신분의 것으로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석목관묘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⁶⁾. 다시 말하면 전남동부지역에 있어, 대곡리나 초포리와 같은 기원전 3~2세기전반의 지배층의 묘제인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에서 지식묘가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과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의 뒷받침으로는 지식묘가 가장 밀집된 전남지역에서도 동부지역에 가장 많은 지식묘가 분포한다는 점과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末期의 圍石形 墓槨이 타지역에 비해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이영문 1993).

출토유물이 없는 위석형을 감안하면 전남동부지역에 있어 지식묘의 하한은 기원전 2세기까지도 내려볼 수 있다. 호남지역에서 지식묘가 가장 늦게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여지는 전남동부지역에서 기원전 1세기대에는 순천 용당동 유적같이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토광목관묘가 주류가 된다. 따라서 지식묘는 이 단계에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여진다. 요컨대 원형점토대토기단계까지인 기원전 2세기까지 지식묘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²⁷⁾.

2. 삼각구연점토대토기문화기

삼각구연점토대토기문화단계의 묘제로는 옹관묘, 토광목관묘, 주구묘 등이 있다²⁸⁾.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와 달리, 토광목관묘는 호남지방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며, 옹관묘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여 전북지역까지 확인된다. 한편 주구묘는 서해안지역에서 발견되어 보령 관창리 유적과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호남지방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²⁹⁾.

26) 앞으로의 조사성과에 따라 전남동부지역에서 전남서부지역과 같이 세형동검이 부장된 우월한 적석목관묘가 부장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27) 전남동부지역에서 지식묘의 하한과 관련하여 순천 연향동 송국리형 주거지(최인선·조근우·이순엽 1999)는 주목되는 유적이다. 연향동 송국리형 주거지에서는 퇴화된 作業孔이 보이고, 삼각구연점토대토기를 포함한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어 기원전 1세기대로 편년된다. 송국리형 주거지는 지식묘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주거지이다. 따라서 전남동부지역에서 가장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가장 늦은 시기의 지식묘가 잔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식묘의 형식으로는 출토유물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소형화된 위석형 지식묘라고 할 수 있다.

28) 영남지방에서는 삼각구연점토대토기단계의 적석목관묘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호남지방에서도 전형적인 삼각구연점토대토기단계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될 가능성은 크다.

29) 전술한 바와 같이 호남지방의 초기 주구묘는 보령 관창리 주구묘와 연결되는데, 원형점토대토기와 축도가 출토되지만 계통상 관창리보다 늦은 단계로 보이기에 말기의 원형점토대토기단계나 이른 시기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연대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남지방에서 기원 이후시기에 많은 주구묘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삼각구연점토대토기단계에도 주구묘가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주구묘와 옹관묘가 철기시대후기에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호남 서부지역에 계승 발전되는 데에 비해, 전남 동부지역에는 그러한 양상이 보이지 않고 철기시대 후기에 순천 요곡리와 고흥 한천리·석봉리 등지에서 토광묘(토광목관묘)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점토대토기토기문화기에도 전남동부지역에는 주구묘와 옹관묘의 유입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는 주구묘가 탐진강유역인 장흥지역까지 확인되고 있다.

한편, 삼각구연점토대문화기에 묘제간의 위계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토광(목관)묘와 옹관묘로 대별해 볼 수 있지만, 토광묘에도 세형동검, 동모, 동경, 철기류 등의 금속기가 출토되는 경우와 토기류만 출토되는 경우 2가지가 있다. 금속기가 출토되는 토광묘가 상대적으로 상위의 신분이라고 할 것이다. 옹관묘는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데, 토광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장이어서 유물이 거의 없거나 소형토기 1점에 불과하다. 이러한 옹관묘가 유아에 한할 수도 있으나(임영진 2001) 신창동 옹관묘의 경우는 4×28m 정도의 면적에서 53기의 옹관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기에 모두 유아용으로 볼 수는 없고 성인의 세골장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부정연하게 굴광하고, 옹관이 실생활에 쓰던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높은 신분의 묘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는 조금 더 늦은 시기의 영산강유역의 초기 주구토광묘에서 옹관묘가 토광묘에 대해 배장묘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 1) 湖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期の 地域別 墓制와 編年

지 역	연 대 묘 제	기원전					기원후
		400	300	200	100	0	100
전북 지역	적석석곽묘					
	석개토광묘					
	적석목관묘					
	주구묘					
	토광묘					
	옹관묘					
전남 서부 지역	지석묘					
	적석목관묘					
	토광묘					
	주구묘					

지역	연대 묘제	기원전					기원후
		400	300	200	100	0	100
전남서부지역	옹관묘		
전남동부지역	지석묘		
	토광묘			

V. 맷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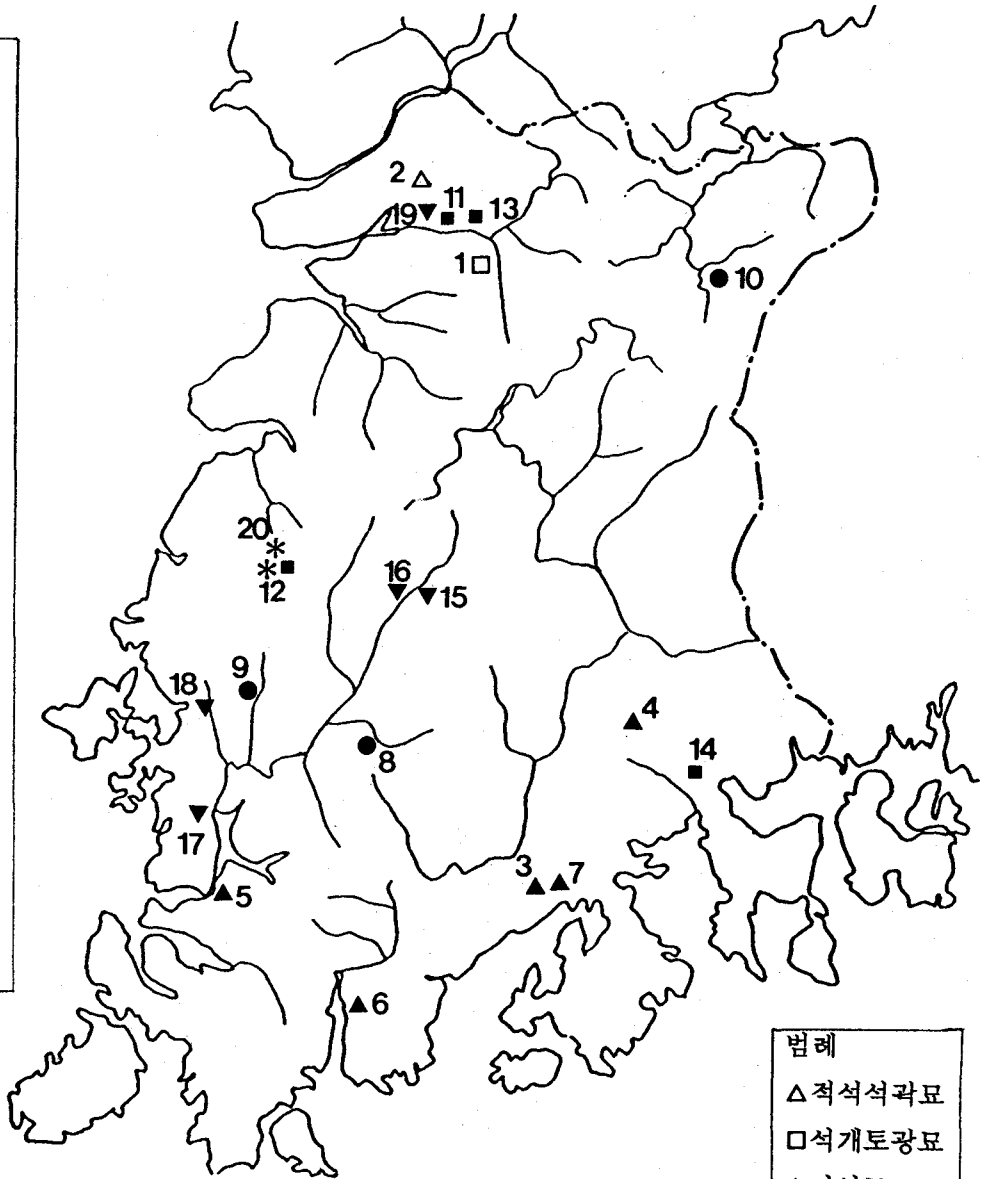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호남지방에서 점토대토기문화기와 관련되는 묘제로는 적석석곽묘, 지석묘, 석개토광묘, 적석목관묘, 주구묘, 토광묘, 옹관묘 등이 있다.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기(I단계)에, 세형동검·조문경·흑도·원형점토대토기 등의 새로운 유물이 확인되고 있지만, 묘제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묘제에 신묘제인 적석목관묘의 일부 속성이 가미된 적석석곽묘, 지석묘, 석개토광묘 등이 확인되고 있다. 적석석곽묘와 석개토광묘는 전북지역에서, 지석묘는 전남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의 초기에 호서지방의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같은 신묘제의 유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물에서도 뒷받침되다싶이 요녕지방 등지에서의 유이민의 1차 도래지가 호서지방이 중심이었고, 호남지방은 그러한 문화의 2차적인 파급속에서 묘제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호남지방에서도 전남지방은 새로운 문화의 영향이 더 늦었다고 보여진다. 호남지방에서 화순 대곡리와 같은 적석목관묘가 출현하는 것은 대전 괴정동보다 늦은 단계인 기원전 3세기대에 이르러서이다(II단계). 이후에 토광묘, 주구묘, 옹관묘 등이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방에서 다뉴조문경이 출토되는 I 단계를 요녕지방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점토대토기문화가 파급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다뉴세문경이 확인되는 II 단계 이후는 점토대토기문화의 토착화가 진전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는 전남동부지역에 목관묘 이전의 적석목관묘 단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지석묘가 이어지고, 지배층의 묘제에 있어서도 지석묘가 주도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남동부지역이 산악지대이면서 문화 전파의 종착지였고, 청동기시대 이래의 지석묘가 장기적으로 사용되어 신묘제와 문화를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보수성에 기인할 것이다. 그리고 삼각구연점토대토기문화기에도 전남동부지역에는 주구묘

나 옹관묘가 확인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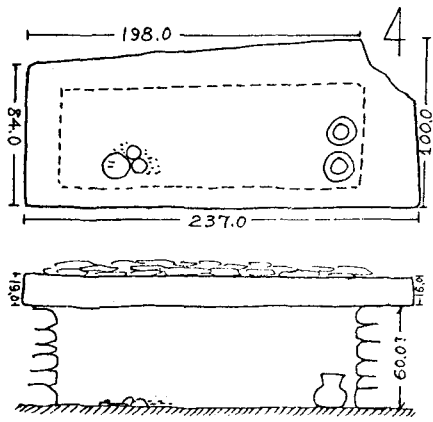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는 앞 시기인 청동기시대나 2·3세기대 이후의 묘제에 비해서는 조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한 자료가 현재까지의 조사성과에 한정된 관계로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추가적인 조사성과와 더불어 연구가 진척되면 이 시기의 묘제와 문화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先學들의 叱正을 바란다.

1. 전주 여의동
2. 익산 다송리
3. 보성 송곡리
4. 순천 평중리
5. 영암 장천리
6. 강진 영복리
7. 보성 동촌리
8. 화순 대곡리
9. 함평 초포리
10. 장수 남양리
11. 익산 신동리
12. 영광 군동
13. 익산 평장리
14. 순천 용당동
15. 광주 신창동
16. 광주 운남동
17. 무안 인평
18. 함평 장년리
19. 익산 어양동
20. 고창 광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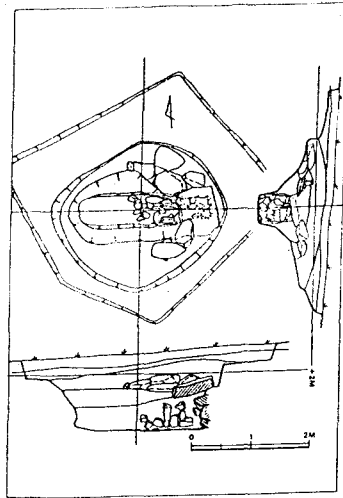


- 범례
- △적석석곽묘
 - 석개토광묘
 - ▲지석묘
 - 적석목관묘
 - 토광묘
 - ▼옹관묘
 - *주구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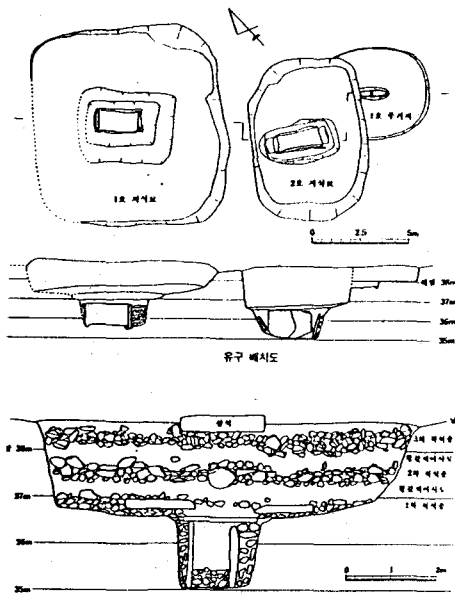
〈도면 1〉 주요 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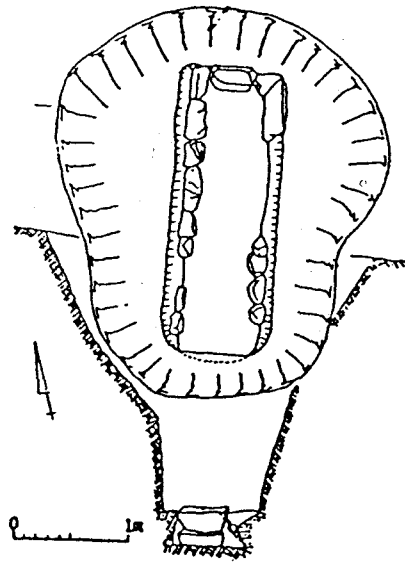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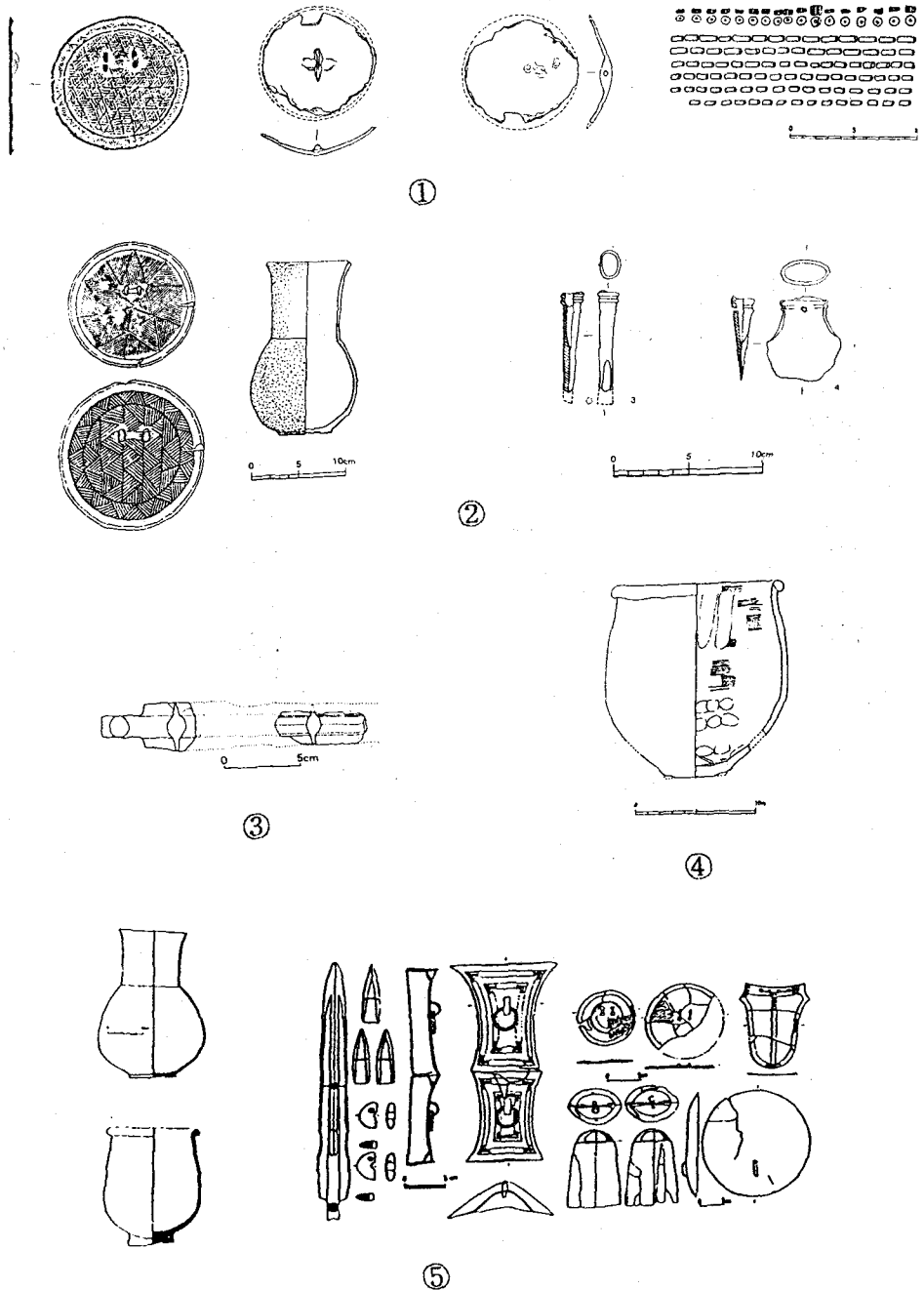


④

〈도면 2〉 I 段階의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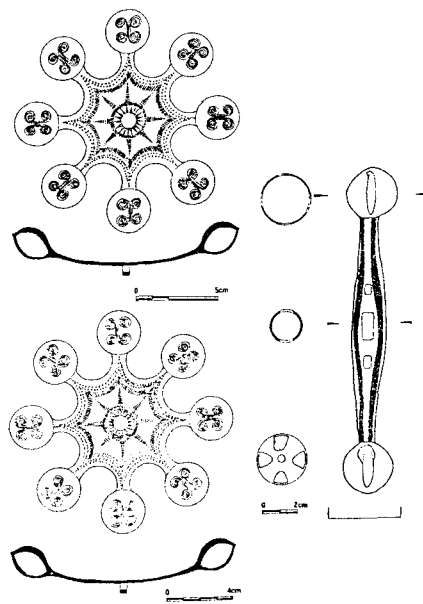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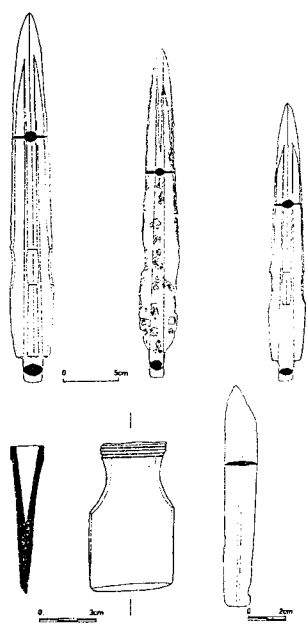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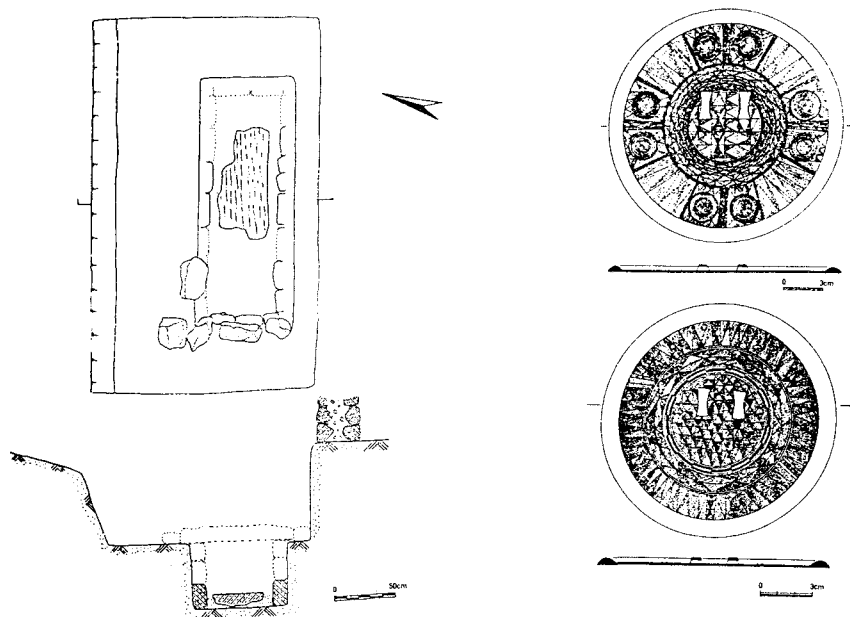
(①익산 다송리 적석석곽묘 ②진주 여의동 1호 석개토광묘

③보성 동촌리 지석묘 ④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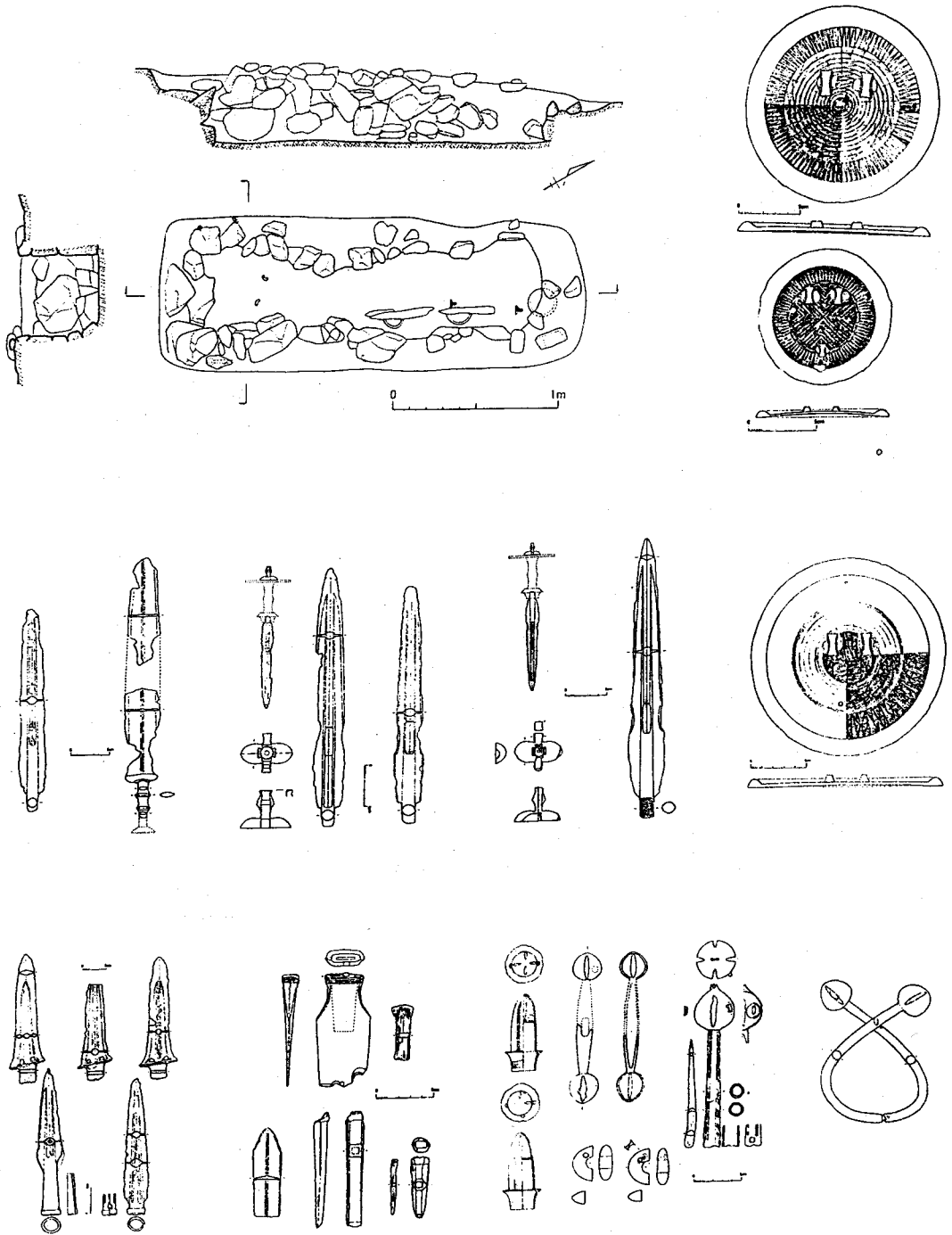


〈도면 3〉 I 段階의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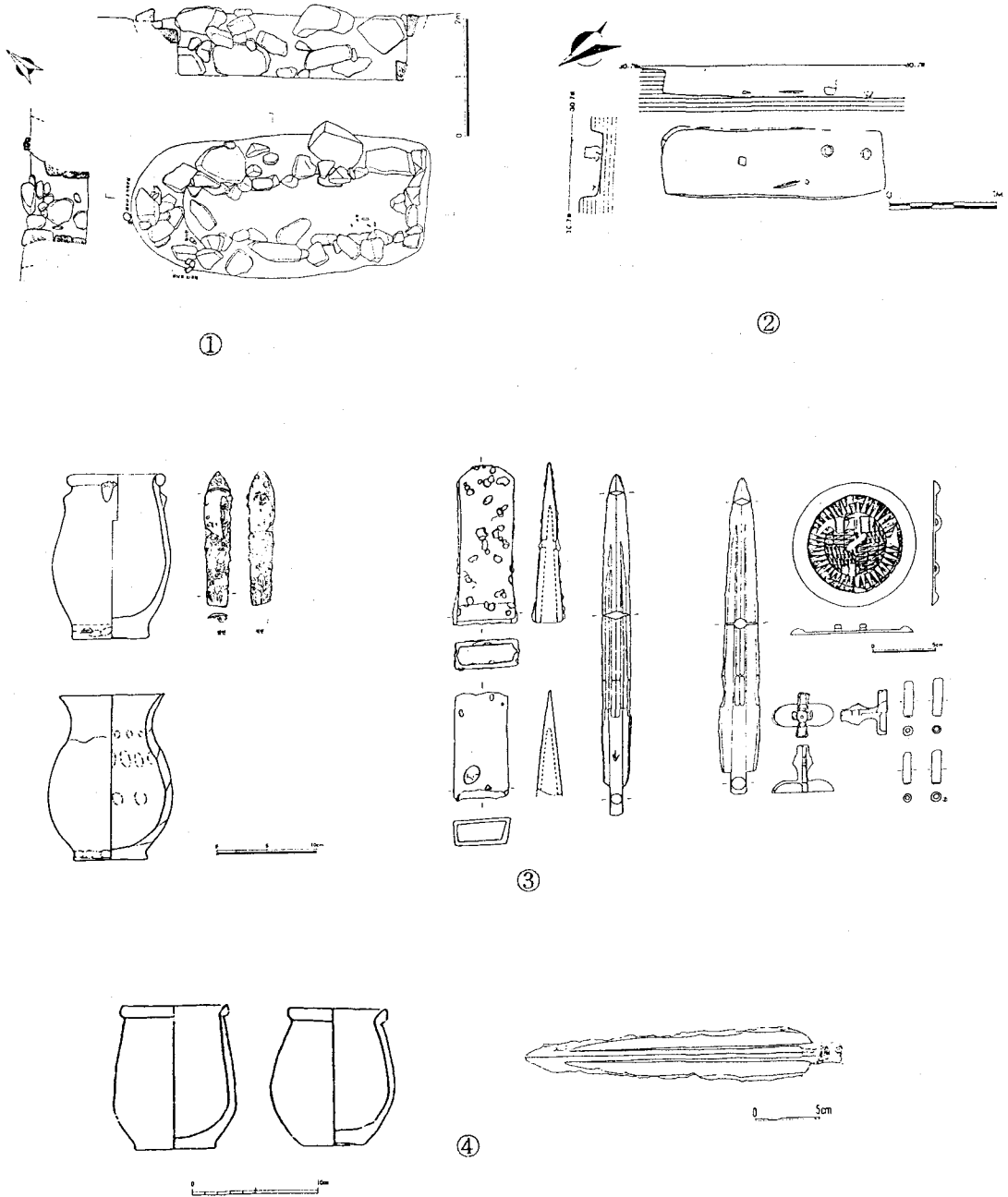
- (①익산 다송리 적석석곽묘 ②전주 여의동 1호 석개토광묘
 ③영암 장천리 지석묘 ④영광 군동 4호 토광묘 ⑤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



〈도면 4〉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와 출토유물(Ⅱ段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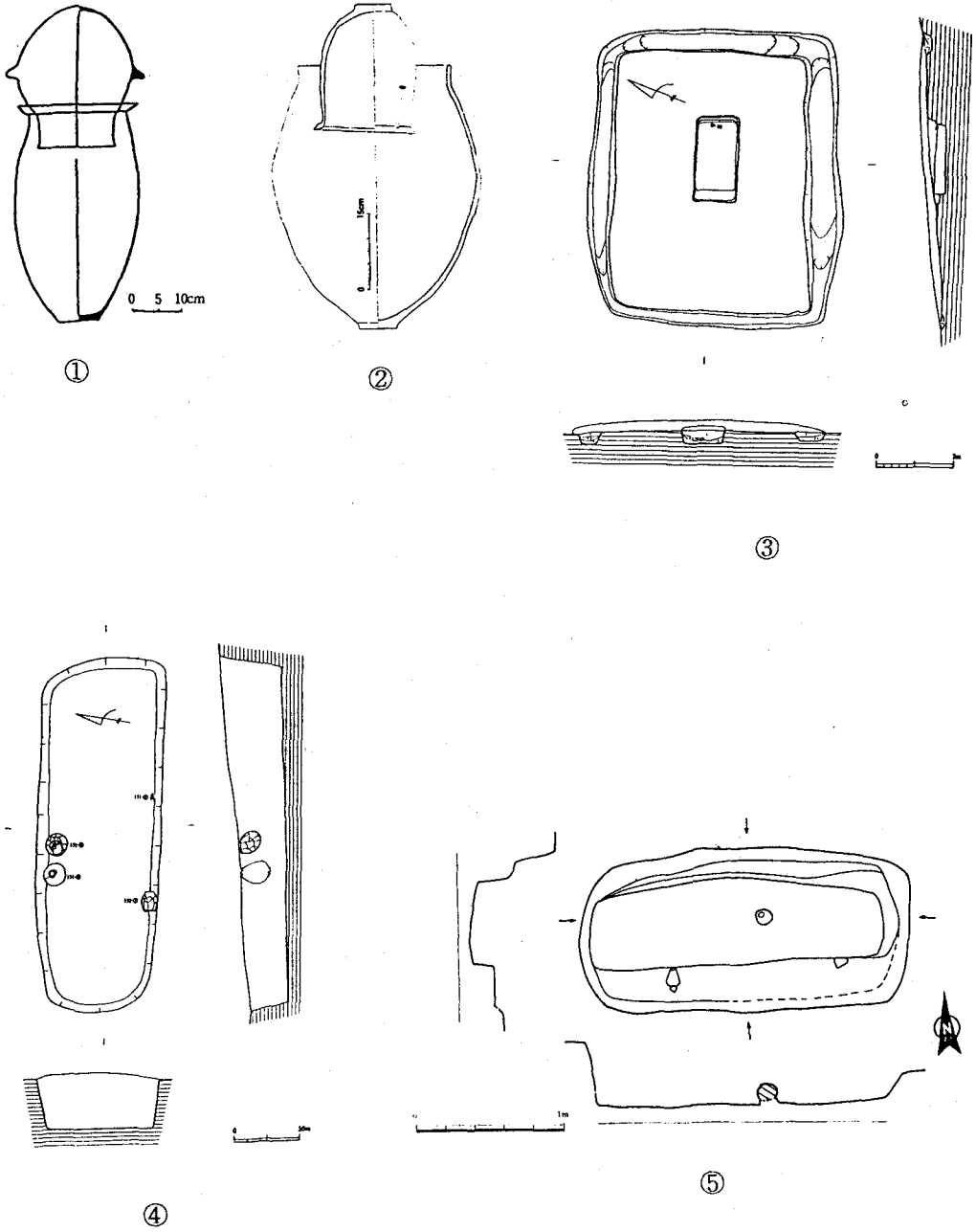
〈도면 5〉 함평 초포리 적석목관묘와 출토유물(Ⅱ段階)



〈도면 6〉 Ⅲ段階의 遺構와 出土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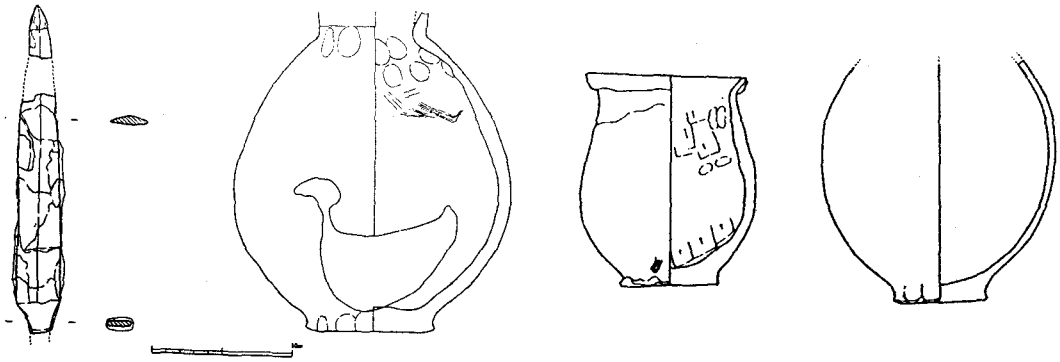
(①장수 남양리 적석목관묘(2호) ②익산 신동리 토광묘(1호)

③장수 남양리 적석목관묘 出土유물 ④익산 신동리 토광묘 出土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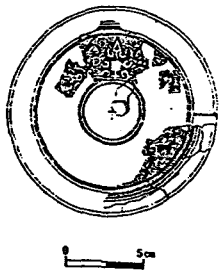


〈도면 7〉 IV段階의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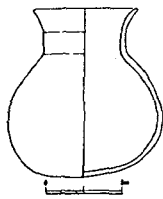
- (①광주 신창동 용관묘(17호) ②광주 운남동 용관묘(4호)
 ③영광 군동 주구묘(A지구 18호) ④영광 군동 토광묘(B지구 3호) ⑤순천 용당동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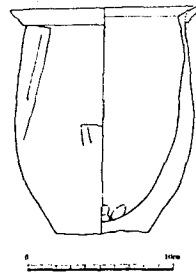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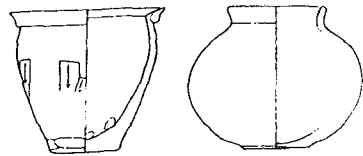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도면 8〉 IV 段階의 遺物

- (①영광 군동 토광묘(B지구 3호) ②익산 평장리 토광묘
③영광 군동 주구묘(A지구 18호) ④순천 용당동 토광묘)

〈參考文獻〉

- 국립광주박물관, 1993, 『신창동유적-제1차 발굴조사 개보-』
2001, 「보성 동촌리유적 지도위원회의자료」
- 국립부여박물관, 1987, 『보령 교성리 집자리』
- 국립중앙박물관, 1976, 『조도 패총』
- 김영희, 2000, 「영광 군동 '라' 유적 발굴조사보고」, 『제 8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호남지역의 철기문화』, 호남고고학회
- 김승욱, 1999, 「진안 용담댐 지석묘 발굴조사」,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발표요지』.
2001,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45.
- 김승욱 · 이종철, 2000,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여의곡유적 조사개요」, 『21세기 한국고고학의 방향』(제 2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김원룡, 1964, 『신창리옹관묘지』, 서울대학교고고인류학충간제1책.
- 김정학, 1983, 「김해 내동 지석묘 조사개보」, 『부산 당감동 고분군』, 부산대학교박물관.
- 노미선, 1998, 『금강유역 점토대토기의 연구』, 전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노혁진, 2001, 「점토대토기문화의 사회성격에 대한 일고찰」, 『한국고고학보』 45.
- 박순발, 1997, 「한강유역의 기층문화와 백제의 성장과정」, 『한국고고학보』 36.
- 박승규, 1998, 「대구 팔달동유적의 적석목관묘」, 『제4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 박진일, 2000, 『원형점토대토기문화연구-호서 및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부산대석사학위 논문
2001, 「영남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시론」, 『한국상고사학보』제 35호.
- 서성훈 · 이영문, 1983, 『강진 영복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 서성훈 · 성낙준, 1984, 『고흥장수제지석묘조사』, 국립광주박물관.
- 송정현 · 이영문, 1988, 「죽산리 '다' 군 지석묘」,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Ⅲ), 전남대학교박물관 · 전라남도.
- 신경숙, 2002, 『호남지역 점토대토기 연구』, 목포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신경철, 1980, 「웅천문화기 기원전상한설 재고」, 『부대사학』 제4집.
- 심봉근 · 박은정, 1992, 「한국청동기 계보와 그 동반유물」, 『한국상고사학보』 10호.
- 안승모 · 유병하 · 윤태영, 1996, 『완주 반교리 유적』, 국립전주박물관
- 안재호, 1989,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성격과 연대」, 『늑도주거지』, 부산대박물관

-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 「광대리유적」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유 철, 1996, 「전북지방 묘제에 대한 소고」, 『호남고고학보』3 집.
- 윤덕향, 2000, 『남양리 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 윤세영·이홍중, 1997, 『관창리 주구묘』,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 은화수, 2001, 「보성 동촌리유적 발굴조사」, 『한국농경문화의 형성(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 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이건무, 1990, 「부여 합송리유적 출토 일괄유물」, 『고고학지』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2, 「한국 청동시기의 연구-이형동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28.
1999, 「호남지역의 청동기문화」, 『호남지역의 청동기문화(제7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이건무·서성훈, 1988, 『함평 초포리유적』, 국립광주박물관.
- 이건무·신광섭, 1994, 「익산 석천리 옹관묘에 대하여」, 『고고학지』 6.
- 이경순, 1994, 『세형동검문화기의 묘제에 대한 고찰』, 동의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기길, 2001, 「새로 밝혀진 영광군의 선사와 고대문화」, 『선사와 고대』16, 한국고대학회.
- 이동희, 2002, 「전남지방 지식묘사회와 발전단계」, 『호남고고학보』15, 호남고고학회.
- 이상길, 1993, 「창원 덕천리 발굴조사보고」, 『제 1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이송래, 1999, 「한국의 지식묘(전라북도)」, 『한국지식묘유적 종합조사·연구(Ⅱ)』, 문화재청·서울대박물관
- 이영문, 1984, 「승주군의 선사유적」, 『승주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승주문화원.
1993, 『전남지방 지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이원광, 2000, 「한국방형주구묘의 일고찰」, 『문화재』 3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은창, 1967, 「대전시 괴정동 출토 일괄유물」, 『고고미술』 65, 한국미술사학회
- 이재열, 1999, 「진안 용담댐 수좌동 고인돌군」, 『동원학술논문집』제2집.
- 이청규, 1983, 「편년」, 『한국사론』 13 下, 국사편찬위원회
1999, 「동북아시아의 다뉴경과 그 부장묘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40집
- 임병태, 1987, 「영암출토 청동기용범에 대하여」,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논총』 I.
- 임영진, 1992, 「보성군의 고고학유적」, 『보성군문화유적학술조사』, 전남대학교박물관.
2001, 「1~3세기 호남지역 고분의 다양성」, 『동아시아 1~3세기 주거와 고분』(문화재

- 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제10집), 국립문화재연구소.
- 임영진 · 서현주, 1997, 『광주 치평동 유적』, 전남대박물관
- 임영진 · 이영문, 1992, 「호남고속도로 확장예정지역의 고고학유적」, 『호남고속도로 광주-순천간 확장예정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전남대학교박물관.
- 전남대박물관, 1997, 「목포-광양간 고속화도로 보성-별교간 공사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약보고(유인물)」.
- 조선대박물관, 1999, 「영광 마전 · 원당 · 수동 · 군동유적 약보고서」, 『서해안고속도로(무안 - 영광간)건설공사구간 문화유적발굴조사』.
- 전영래, 1975, 「익산 다송리 청동유물 출토묘」, 『전북유적조사보고』제5집. 전라북도박물관.
- 1987, 「금강유역 청동기문화권 신자료」, 『마한 · 백제문화』10.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 1990, 『전주 여의동 선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전주대학교박물관.
- 정징원 · 신경철, 1987, 「종말기무문토기에 관한 연구」, 『한국고고학보』20.
- 조영제, 1983, 「서부경남 선사문화 지표조사 보고(I)」, 『부산사학』제7집
- 조유전, 1984, 「전남 화순 청동일괄 출토유적」,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 조진선, 1997, 「보성 예당리 · 송곡리유적」, 『호남지역 고분의 내부구조』(제5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 조현종 · 신상효 · 장재근, 1996, 『광주 운남동 유적』, 국립광주박물관.
- 지건길, 1978, 「예산 동서리 석관묘 출토 청동일괄유물」 『백제연구』9.
- 1990, 「장수 남양리 출토 청동기 · 철기 일괄유물」, 『고고학지』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진수정, 1998, 「대구 팔달동유적 목관묘에 대하여」, 『제9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조사연구 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 최몽룡, 1978, 「전남지방소재 지식묘의 형식과 분류」, 『역사학보』78.
- 1997, 「철기시대의 시대구분」,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 최성락, 1984, 『영암 청룡리 · 장천리 지식묘군』, 목포대학교박물관.
- 1988, 「시천리 살치 '나' 군 고인돌」,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IV), 전남대학교박물관 · 전라남도.
- 2002, 「전남지역 선사고고학의 연구성과」 『고문화』59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성락 외, 1993, 『승주 우산리 고인돌』,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 이영철 · 한옥민, 1999, 『무안 인평 고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 김건수, 2000, 『영광 학정리 · 함평 용산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 이헌중, 2001, 『함평 장년리 당하산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 이영철 · 한옥민 · 김영희, 2001, 『영광 군동유적-라지구 주거지 · 분묘』, 목포대학교 박물관.
- 최완규, 1998, 「익산 신동리 초기철기 · 백제유적 발굴조사개보」, 『제4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 2000, 「호남지방의 분묘유형과 그 전개」, 『호남지역의 철기문화』(제8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2002, 「전북지방의 주구묘」, 『동아시아의 주구묘』(호남고고학회 창립 10주년기념국제 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 최인선 · 이동희, 2001, 『순천 용당동 망북 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
- 최인선 · 조근우 · 이순엽, 1999, 『순천 연향동 대석 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
- 최종규, 1995,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 하인수, 1989, 『영남지방 단도마연토기에 대한 신고찰』, 부산대석사학위논문.
- 한국고고학회, 1969, 「대전 괴정동출토 일괄유물」, 『고고학』2.
- 한병삼 · 이건무, 1977, 『남성리 석관묘』, 국립중앙박물관.
- 한상인, 1981, 『점토대토기문화성격의 일고찰』,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한수영, 1996, 『한반도 서남부지역 토광묘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한옥민, 2000, 『전남지방 토광묘 연구』, 전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0, 「진안 망덕 청동기시대 유적(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4차 발굴 조사 및 지식묘 이전복원 지도위원회 자료)」
- 2001, 『익산 하나로 도로건설구간내 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

Burials and Regionality of the 'Jumtodaе' Pottery(Pottery with Clay Strips) Cultural Age in Honam Province

Lee, Dong-hee

It has been known that pit-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piling, pit-wooden chamber tomb, jar coffin tomb and fosse-girded tomb were the chief burial systems of the 'Jumtodaе' pottery cultural age in Honam province. But in this thesis, I lay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se burial systems would not represent that of the 'Jumtodaе' pottery cultural age in Honam province. Because the burial systems of bronze age had been existed in the Jumtodaе pottery cultural age and there were several differences among regions.

According to the grave goods, the burial systems of the 'Jumtodaе' pottery cultural age could be divided into four stages. New artifacts, including slender daggers, burnished black pottery, pottery with round clay strips and so on, were found in the first period of the cultural age of the pottery with round clay strips, but there were stone-lined tombs with stone piling, dolmens, pit tombs with stone covers that has been the main burial systems of bronze age, especially stone-lined tombs with stone piling, pit tombs with stone covers in Cheonpuk Province and dolmens in Cheonnam Province, influenced by the pit-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piling. It represent that the regionality of burial systems of bronze age had been existed in this period. The fact that the new type of burials like pit-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piling found at Koe-Jung dong, Taejon in Hoseo Province, was not found in the first period of the cultural age of the pottery with round clay strips in Honam Province could be represent that the main region of the first immigration of people from Chinese Liaoning Province was the Hoseo Province and Honam Province was secondary influenced by Hoseo Province, especially to their burial systems.

The influence of new trend was late in Honam Province, especially in Cheonnam Province. The fact that there would be the relatively earlier pit-wooden chamber tomb, pit-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piling, even though dolmens was found in the western Cheonam Province in part, represent that the regionality of the western Cheonam Province of Yeongsan river valley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stern Cheonam Provinc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the stage of the pit-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piling which was earlier than pit-wooden chamber tomb was not found in the eastern Cheonam Province, and the fosse-girded tomb, jar coffin tomb was not found neither. These regionality of this area represent that this area was the mountainous area and final destination of cultural diffusion. And because of their cultural conservativeness, they could not accept the new systems and other cultural aspects.